



10월
둘째 주

가정예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찬양해요 찬송가 546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22:54-62

-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떨적이 따라가니라
-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 이해하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의 역센 억양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뜰 가운데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말 한 마디만 들어도 그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이 들통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옥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러나 그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과 관계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깊은 슬픔에 찬 눈으로 그를 보시자 베드로는 그 눈길을 대할 수 없어 뜰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할 때 예수님은 깊은 슬픔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1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나요(56절)?

이 사람(베드로)도 그(예수님)와 있었느니라.

2 한 여종과 또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각각 뭐라고 대답했습니까(57, 58, 60절)?

내가 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로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을 알지 못하노라

3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61절)?

4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5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